

Public Design

景觀共同體 釜山의 課題와 指向

2009년 10월 11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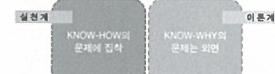
'피블릭디자인' : 경관공동체 부산의 과제와 지향

1. 들어가는 글 : 公共 Design vs. Public Design

■ 공공, 공공성에 대한 기본적 논의가 필요한가? 어떤 의미를 갖는가?

공공디자인의 존재

- 문화적 깊이가 없이 장식적/화사적으로 진행되는 패션 트렌드를 경계해야 하고
-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기에, 피블릭의 진정한 개념과 시대적 의미부터 되새겨야...
- 공공디자인의 빈곤·부재의 원인은 상황·맞도·실천의 부재·맞도 있지만,
어쩌면 현실에 대한 낭창한 비판의 부재, 개념과 이론의 공백·맞이 아닐까?



■ 公共Design이 왜 'Public Design'어야 하나?

공공디자인의 존재



- 공공디자인은 있는 것 같다. 그러나,
- 우리의 일상을 문택하게 하고 소통하는 공공디자인은 여전히 없는 것 같다.
- 공공디자인/피블릭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공공영역에서
공간문화·소통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
- 공공디자인이 되거든 건축·도시가 되거든 '디자인' 이 행정·정치 현시국의 최생
- 디자인 : '마케팅' 개입 또는 파워 개입 vs 가치의 개입
- 디자인과 대중 사이의 마케팅 개념이 아니라 가치의 개념이 되어야 높은 차원의 사회화 가능

■ 도시에서의 Fashionability vs Sustainability

생산자와 소비자의 Gap

- '유령'의 원리는 변화성(changeability)인데,
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뒤떨어져 있으며
- 소수의 도시 유행선도자들(fashionistas) 위주로
유령의덫(fashion trap)에 빠져들 위험은 상존

소비자의 소외

- 사람들이 도시적 정체성과 관련한 이야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저항(resistance)
- 빈민에 문화적 관심은 있고 나쁜 것을 되돌아보고 전망을 끝인 아니라,
투명함(honesty)을 갖게 되고, 도시에서의 상충갈등을 이해

Favela Chic(길만 번지로해진 달동네)의 공공미술

- 진정한 빈곤을 넘어서는 반·브랜드리는 역기능
- 달동네의 공공 벽화, 과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인가?



■ 도시는 카뮤니케이션이다 : '상징적(Iconic)' vs '서사적(Narrative)'

IDENTITY

C
O
M
B
E
U
A
R
N
P
T
I
T
Y
T
Y

$I = (E + T + T) \times (C \cdot M \cdot E)$

도시는 모두가 읽어야 할
모든 것이 담긴 '텍스트'

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는
메시지를 담은 '이야기'

PLACE & NARRATIVE